

금융그룹내 웬 대학?... 하나, 디지털인력 제대로 키운다

하나금융, DT 유니버시티 출범

디지털 맞춤형 실무교육 플랫폼 Biz·IT·혁신기술 전문가 목표 언택트 교육 대비 콘텐츠 다양화

하나금융그룹이 금융 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유니버시티(University)'를 출범했다.

DT 유니버시티는 그룹 전반에 걸친 디지털 역량을 강화코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 디지털 맞춤형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통합 교육 플랫폼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그룹 디지털 비전으로 선언한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를 향한 로드맵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디지털 전문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미 지난 2018년 '2020 손님 중심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라는 디지털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DT 유니버시티는 디지털 인재를 ▲



(왼쪽부터)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ICT총괄 전무, 한준성 하나금융그룹 디지털부문 부사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김경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진국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유시완 하나금융티아이 사장. /하나금융그룹

디지털 Biz 전문가 ▲디지털 IT 전문가 ▲혁신기술 전문가 등 3가지 분야로 정의하고, 하나금융그룹 모든 임직원이 1개 이상의 분야에서 전문화된 인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과정은 총 3단계 과정으로 운영된다. 입문과정인 1단계에서는 디지털 마인드 함양, 최신 트렌드 등과 같은 공

통 소양을, 심화과정인 2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다룬다.

고급과정인 3단계에서는 신기술 적용과 신서비스 개발을 위해 팀을 구성해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해커톤(Hackathon) 등을 진행한다.

하나금융은 또 오프라인 과정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과정도 확대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함으로써 언택트(Untact) 교육 확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DT 유니버시티의 특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그룹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상

향 평준화하고, 향상된 역량을 기반으로 손님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UX)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평소 "지구의 70%가 물이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은 1% 밖에 안된다"며 유효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위해 그룹데이터총괄(CDO) 임원을 두고 있다. CDO는 실리 콘밸리를 거쳐 삼성전자 DS부문 소프트웨어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7년 영입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전무가 맡고 있다. 김 전무는 하나은행 이노베이션(Innovation) & ICT그룹, 하나금융티아이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원장도 겸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5월 글로벌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허브로 인천 청라에 '하나글로벌캠퍼스'도 오픈했다. 하나글로벌캠퍼스는 '청라시대'를 위해 3단계로 구축중인 하나드림타운의 일환이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법정금리 인하 두고 2금융권 '초긴장'

저축銀 "타격 제로" 대부업 "영업 불가"

인하시 고금리대출 판매 수익 한계 저축銀, 최고금리 인하 큰 의미 없어 대부업, 최근 몇년간 신규대출 중단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까지 내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2금융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 대출을 판매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수익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저축은행은 현재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이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수익을 도모하고 있어 큰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현행 연 24%로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향후 20%까지 인하될 경우에는 대부업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전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 2금융권 업체들이 초긴장 상태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분위기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현행 최고금리보다 더 낮은 수치의 대출 금리로도 충분히 수익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고금리 인하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최근 몇년간 고금리 대출 비중이 현저하게 줄고 중금리 대출이 꾸준히 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업체들과 제휴하면서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대거 유입되고 고금리 대출보다는 중금리 대출로 상품 판매 비중이 쏠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신용대출 부분에서 고금리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이 유입되면서 중금리 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부업체다. 현행 24%로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부업체들은 최근 몇년 간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우선 업계 1위 산와머니가 지난해 3월 신규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조이크레디트대부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업체들은 기존 대출만 회수하는 동시에 대부자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실질적인 영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 시장을 위축시키면 그 결과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을 줄일수록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보험회사 유형별 최근 3년간 운용자산 대비 이자수익 비율〉

구분	유형	회사 수	2017	2019	변화
생명보험	저	7개	3.30%	3.10%	-0.2%p
	중	7개	3.10%	2.80%	-0.3%p
	고	7개	3.00%	2.80%	-0.2%p
손해보험	저	3개	2.80%	2.50%	-0.3%p
	중	4개	2.60%	2.30%	-0.3%p
	고	4개	3.00%	2.60%	-0.4%p

주: 운용자산 대비 이자수익 = 이자수익/기중운용자산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경영공시 /보험연구원

“적극적 금융자산처분, 이자의 감소할 수도”

처분익, 자산 처분규모 따라 변동 심해 지난해 국고채 10년물 금리 1.70%

최근 보험회사가 금융자산처분을 확대하면서 운용자산이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운용자산 대비 이자수익 비율이 낮은 회사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과도한 금융자산처분은 향후 이자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7일 발간한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 상승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금리는 2017년에 비해 하락했지만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상승했다.

지난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70%로 2017년에 비해 0.58%포인트 낮았다. 같은 기간 운용자산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각각 0.15%포인트, 0.41%포인트 상승했다.

보통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상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의 장기적 추세는 금리 추세를 따르지만 단기적 변화는 금융자산처분이익의 변동과 관계가 깊다.

운용자산수익(투자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은

안정적으로 변화하지만 금융자산처분 이익은 자산 처분규모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지난 2018년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약 1조2000억원)으로 인해 금융자산처분이익이 급증한 바 있다.

생보사의 경우 자산다변화(가중평균상환기간) 확대 과정에서 금융자산 처분을 늘렸다. 손보사는 자산다변화 확대와 함께 위험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처분을 확대했다.

투자영업수익 중 금융자산처분이익 비중이 높은 생보사일수록 2017~2019년 3년 동안 자산다변화가 크게 증가한 경향이 보였다. 향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킵스)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다변화를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손보사의 경우 금융자산처분이익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신용위험계수가 3년간 다소 낮아진 경향이 나타났다. 자산다변화의 변화는 유형별로 특징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생보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운용자산 대비 이자수익 비율이 낮은 회사들이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한 반면 손보사는 그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주 기자 hj89@

IBK기업銀 핀테크위크서 영업점 가상공간 선포

IBK기업은행이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서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영업점'과 본점 건물 내 'IBK 1st Lab(퍼스트랩)' 두 개의 공간을 가상현실로 제작했다. 이용자는 온라인상 가상공간을 이동하며 홍보영상을 볼 수 있다.

영업점 가상공간은 기업은행의 특화 서비스를 홍보하는 'IBK관'으로, IBK 퍼스트랩(1st Lab)공간은 핀테크 기업의 기술을 은행에 도입하기 위한 혁신 테스트베드를 소개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은 금융당국과 국내외 150여개의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참여해 가상으로 핀테크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박람회다.



코리아핀테크홈페이지 내 IBK기업은행 가상현실 온라인 홍보관. /IBK기업은행

기업은행 홍보관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나우리 기자